

남가주 한인교계 “UMC 한인목회자 징벌적 파송 철회하라!”

남가주 한인교계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달 UMC 가주태평양연회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이낙인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등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온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내린 일방적 재 파송불가 통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정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회장 한기홍 목사), JAMA(전 대표 강순영 목사), 평등법지우운동본부(실행위원 박세현 목사)등 남가주 한인교계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17일, LA 코리아타운 소재 JJ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 파송불가 통보'의 부당함에 맞서 UMC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연대해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은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UMC 한인교회총회에 지지를 보내며, UMC 교단 본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은 UMC 징벌적 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한인교계의 기도와 동참을 요청했다 ©기독일보

부와 연회에 항의 서한 발송 및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불의한 압박에는 미주 사회 및 정치권과 연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홍 목사는 “전통적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은 UMC 내 한인교회의 문제가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모든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며 “남가주와 미주 한인교계가 연합해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정명 목사는 “감리교회는 조선에 헨리 아펜젤러를 파송하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동감리교회를 세웠다. 또 미국 땅에 건너와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첫 한인 이민자들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

을 만큼 감리교는 매우 복음적인 교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주 한인교계 성도들이 미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UMC 내에서 진보적 입장을 주장하는 가주태평양연회 하기가 감독은 지난 달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

유를 대며 감독의 권한으로 임기종료와 다를 바 없는 재 파송불가 명령을 내렸다. 하기가 감독은 통보를 내린 세 교회의 담임 목사 임기를 내달 말로 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임 목회자를 해당 교회에 파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UMC 한인교회총회는 협의 과정도 없이 전통적 성경관으로 인해 내려진 처벌적 파송 조치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하기가 감독의 재 파송불가 통보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대 서명운동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계환 목사(한교총 선교 총무)는 UMC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 확립을 지지해준 남가주 교계에 감사를 표하며 “교단의 장정이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을 지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대한 처벌적 파송은 한인교회를 압박하는 교단의 교권 주의자들의 불법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미 북음주의 루터교회, 트랜스젠더 주교 선출...주류교단 사상 최초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ELCA)의 지역단체가 자유주의 주류 개신교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주교를 선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ELCA 시에라퍼시픽 회의(Sierra Pacific Synod)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마지막 날에 주교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메간 로러(Megan Rohrer) 목사는 또 다른 후보인 제프 R. 존슨(Jeff R. Johnson) 목사를 근소한 차이(209 대 207)로 누르고 시에라퍼시픽 회의 주교에 당

선됐다. 로러는 2006년 미국 북음주의 루터 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트랜스젠더 목회자이며 현재 샌프란시스코 소재 그레이스 북음주의 루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오는 9월 11일 캘리포니아 월넷 크릭에 위치한 성 마태 루터 교회에서 지역 총회 감독으로 공식 취임된다.

로러는 평소에도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he,she) 대신 그들(they)과 같은 중립적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

해 “니케아의 첫 번째 공의회는 트랜스젠더 목사의 주교들의 지도적 역할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다”며 “시에라 퍼시픽 회의가 이 문제와 BIPOC(흑인,토착민,유색인종)와 LGBTQ 목회자들이 직면한 다른 장애물들을 치우기 시작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종교 및 민주주의 연구소’의 제프 월튼(Jeff Walton) 소장은 니케아 공의회를 언급한 로러의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월튼 소장은 “트랜스젠더 성직자들이 억압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



메간 로러 목사 © YouTube

로 이해하기 어렵다. 로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아마도 니케아 평의회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러 주교는 자신의 자유주의 성향의 주류 개신교 교단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당함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했다”며 그의 주장이 “더 많은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영지주의자들(Gnostics)은 어찌나 오늘도 항상 선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루터교파임에도 불구하고, ELCA는 신학과 정치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탈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교단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기로 투표하자, 수백 명의 회원 교인들이 항의의 표시로 교단을 탈퇴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c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TS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북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 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 (Offline) 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 어) 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제45회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총회장에 이재광 목사

온라인으로 진행해 사상 최대 총대 참여

제45회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 총회가 11일(화) 오후 7시 애틀랜타비전교회(담임 정경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313명의 대의원 중 290명 참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장 이재광 목사(동남노회, 할렐루야장로교회), 목사부총회장 박상근 목사(서북남노회, 세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 장로부총회장 윤희주 장로(뉴욕노회, 뉴욕에일교회)가 선출됐다. 그 외

임원진으로는 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노회, 뉴저지장로교회), 부서기 박태겸 목사(캐나다동노회, 캐나다동산교회), 회록서기 강세훈 목사(수도노회, 버지니아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정지홍 목사(남태평양노회, 킬라라존은씨앗교회), 회계 이화영 장로(캐나다서노회, 밴쿠버삼성교회), 부회계 박영훈 장로(서노회, 나성영락교회), 영어회록서기 John Kim 목사(캐나다 동노회)가 임명됐다. 또 총회의 사무를 책임질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광철 목사가 선출됐다.

이재광 신임 총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 없이 부회장직을 두 번 섬기며 많은 것을 배웠다. 아마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연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

그 연단을 기초 삼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고, 복음에 충실할 것이다. 헌법과 정의가 흐르도록,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또 “이민교회 상황

이 녹리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들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임원진을 보면 총회 역사상 가장 젊다. 재능 있고 젊은 임원들이 세워진 만큼 더 역동력 있게 1년간 최선을 다하겠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부총회장은 “미국에서 1년에 4천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과연 한인교회에는 출구가 있는가? 교회는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생존에 도전받을 것이다. 교단이 미래와 이 위기의 출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3인의 후보 중 과반의 득표를 얻어 선출된 김광철 신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은 사무직으로, 자신의 비전을 갖기보다는 총회가 결정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도록 사무적인 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 기본에 충실하며, 지난 목회사역과 노회임원, 총회서기의 경험을 살려 잘 수행해 가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미드웨스턴 69회 졸업식, 한국부 총 32명 학위 수여



미드웨스턴 69회 졸업식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지난 7일, 캔자스시티 캠퍼스에서 69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은 미드웨스턴이 소재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전면 해제함에 따라 현장 졸업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거행된 69회 졸업식에서는 총 30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부는 철학박사 2명, 목회학박사 10명, 교육목회학박사 3명, 교육학 박사 2명, 목회학석사 9명, 상담학석사 3명, MTS 석사 2명, 사모학교 1명 등 총 32명이 졸업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선교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선교사들이 5명이나 됐다. 졸업생들은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미드웨스턴에서 학문 정진의 기회가 됐다’고 졸업의 감격을 나눴다.

양진영 박사(광신대 조직신학 조교수)는 “종교 개혁기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인식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 박사는

종교개혁 당시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세 사람, 루터, 메노 시몬스, 칼뱅을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정황 속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무엇이 성경적이면서 실제적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인지를 제시했다.

멕시코에서 30년을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 김해진 박사(고신대 선교학 조교수)는 “타문화권 교회 개척 원리에 관한 연구: 선교 훈련부터 리더십 이양까지”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성경적 선교 원리로 교회 개척과 리더십 개발, 그리고 이양과 재배치라는 재생산적 교회 개척을 전제로, 교회 개척의 바탕인 ‘성경적 교회론과 문화에 관한 이론’과 ‘성경과 복음의 실천적 이해’ ‘선교와 자민족주의’ 그리고 ‘선교와 상황화’를 다룸으로 교회 개척의 선교학적 문제를 고찰하고 5단계의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원리를 제시했다.

특히 선교지 개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9개 해외 선교단체와

114명의 선교사를 표본집단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해 개척 현황과 재생산적 리더십 이양에 대한 자료를 도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드웨스턴의 성경사역학 철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의 실제적 지향성을 위해 21세기 문화 속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문화 모델을 현장 목양사역과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10명의 졸업생과 수준 높은 논문들을 통해 현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상을 제시하는 학위과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에도 캠퍼스에서 현장 졸업식이 있었지만 4회로 나누어 진행되고 졸업생 당 3명만 초대할 수 있도록 인원을 최대한 제한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봄 졸업식은 2회로 진행됐고, 게스트도 졸업생 당 9명까지 초대할 수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졸업의 감격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었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www.mbts.edu)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교육학박사(EdD), 교육목회학 박사(DEd-Min), 목회학 박사(DMin)의 박사과정과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교육학석사(MACE), 신학연구석사(MTS), 성경상담학석사(MABC)의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통한 건강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부 사무실: 1-816-414-3754 ks@mbts.edu

GMU 사립학교 성경교사 자격증 설명회 개최



행정처장인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사립학교 성경교사(Bible Specialist) 자격증 설명회를 오는 24

일(월) 오전 11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룸으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 홈페이지(www.gmu.edu)에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www.gmu.edu/online Zoom conference 427-715-7776에서 Password 2020을 입력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ACSI 사립학교 교사 및 교감, 교감자격증의 의미 △GMU학생이 가능한 ACSI Certificate 종류 △ACSI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와 방법 △ACSI Bible Specialist 자격증 안내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 및 절차 △유치원 원장 및 중·고등학교 교감 교감 자격 및 절차 △질문과 답변 등이다.

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특히 GMU는 사립학교 교사

Certificate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ACSI)로 부터 The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Program (HEAP)에 가입하게 되어 GMU의 과목을 듣게 되면 별도의 과목신청없이 성경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유치부로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는 현재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정 학위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정회원 학교로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박사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으로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과정이 있으며, 유학생 I-20 비자, 연방정부 및 주정부 무상학비보조(Pell, Cal Grant), 100% 통신교육, 영어트랙이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다.

문의 714-525-0088(Ext 101)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성명서

UMC(연합감리교회) 가주태평양연회 그랜트 하기가 감독은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담임목사 재 파송불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대로, UMC 가주태평양연회 하기가 감독이 3곳의 한인 교회(남가주 주님의 교회, 벨리 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들에게 목회자의 임기 종료로 의미하는 ‘재 파송불가’ 명령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철회를 요청한다.

우선 이 결정은 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내린 인종 차별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우려를 표한다. 이는 한인 사회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요, 한인 교계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조치는 감리교단내에서 일어난 성 정체성논란에서 비롯된 비신앙적 처사로 인식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동료 목회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차별하고 있으며,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한인교회의 정서를 무시하고, 미국 내에 존재하는 한인교회들의 선교적 사명을 가로막는 부당한 조치라고 본다.

따라서 남가주 전체 한인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연합 단체들은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 UMC 한인 교회와 목사님들의 입장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이미 발표한 ‘가주 태평양연회 한인교회협의회 결의문’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교회가 한인 교회들만을 타깃으로 삼아 구조적 인종 차별(discrimination)을 행한 증거로 보고 우리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에 내려진 차별적 명령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둘째, 이번에 내려진 ‘재 파송불가’라는 처벌적 조치는 동성애 이슈에 대한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한인교회들에 대한 불의한 압박으로 보이는 바, 이번 한인교회들에게 내려진 ‘재 파송불가’ 명령은 즉각 **철회하라!**

셋째, 이번 하기가 감독의 한인교회에 대한 ‘재 파송불가’ 조치는 연합 감리교회 교단이 준비하고 발표한 “은혜로운 화해와 결별 의정서” 정신에 위배되며, 목회자와 소속교회의 의견을 무시한 부당한 인사 조치로, 총회의 결정이나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감독의 월권으로 즉각 **철회하라!**

넷째, 하기가 감독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미국 한인교계에 공분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며,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May 17, 2021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목사), 청교도신앙 회복 운동본부(회장 한기홍목사), JAMA(전 대표 강순영목사), KACC(창립준비위원장 샘신목사), 평등법 저지 운동본부(회장 한기홍목사)

“복음 통일, 이제는 연합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8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제2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 개최

각 분야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복음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통일전문가 연합네트워크”는 오는 8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하와이 코나에서 제 2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대회장 임현수 목사)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통일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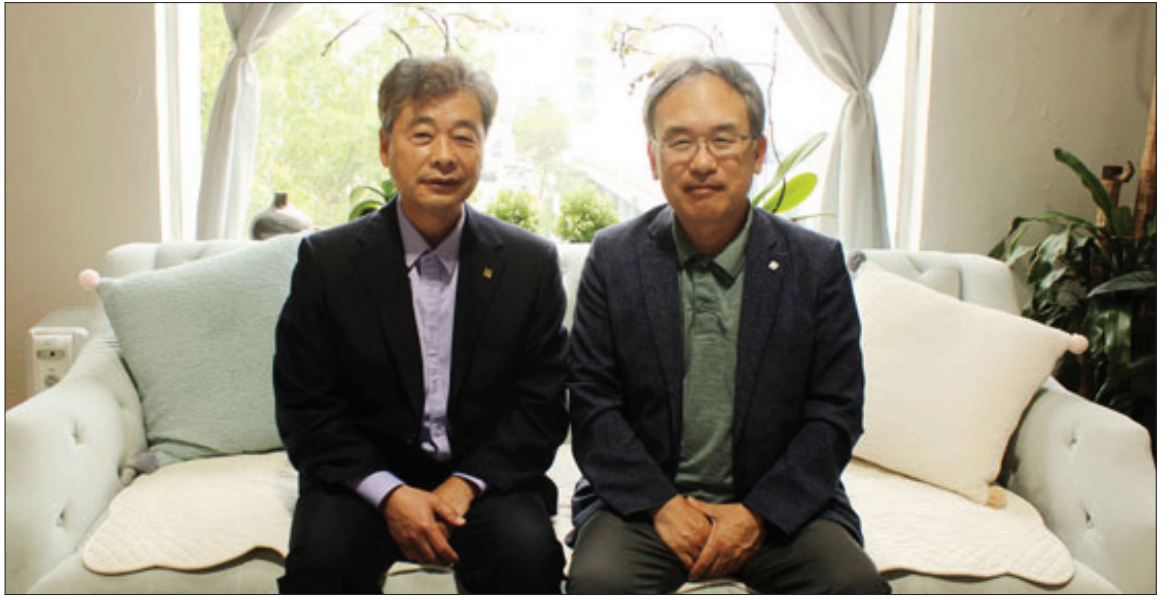
세미나는 그동안 각 교회나 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북한 선교를 반성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와 북/중국경 폐쇄와 함께 현지 선교에서의 직간접 사역이 모두 단절된 현재의 상황에서) 복음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강사로는 임현수 목사를 비롯해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아침 저녁 말씀을 전하고, 전문영역에서는 통일경제분야 - 신장민 교수, 정보기도운동 - 이윤희 교수(에스터

기도운동), 북한농업-김학송 선교사, 근현대사의 기독교의 역할 - 황준석 목사, 탈북구제-천기원 목사(두리하나), 통일헌법-송인호 교수(한동대), 북한지교회역사-강석진 목사(극동방송), 연합네트워크-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 문화영상제작-윤학렬 감독, 영어권 2세 사역-채지미 목사, 탈북증언-김연영 자매(탈북자) 등 목회자들과 통일 전문가들이 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차세대(영어권포함)과의 링크를 모색하는 실제적인 토론과 워킹을 진행하게 된다.

대회장 임현수 목사는 “이제는 각 분야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 등 전세계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년간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를 총괄하는 박상원 목사는 “전세계 수 많은 통일사역자, 선교사들이 통일을 가슴에 품고 다양한 선교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통일을 위한



김학송 선교사(좌)와 박상원 목사(우)가 본사를 방문해 제2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를 소개했다 ©기독일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합 선교를 이뤄가자 한다”며 “젊은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고, 북한의 실상을 조명하며 통일의 실제적인 해법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농업” 전문가로 평양과기대에서 4년간 실무로 지도했고, 북한에 1년간 억류되었다가 지난 2018년 5월에 석방되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김학송 선교사는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은 통일을 위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한 구체

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소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주의 한인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영어권 2세 자녀들의 참여하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세미나는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열방대학교 게스트센터 - 선착순마감, 근처 INNO 호텔은 개인적으로 예약하면 되고 등록비 \$500/1인, \$750/부부이며, 강사들의 강의자료 제공되며 Zoom 온라인 비대면 참석(등록비 \$20/1인)

도 가능하다. 교회가 후원하면(20명:\$100, 50명:\$200, 100명:\$300, 300명:\$1,000 ~) 비대면 FREE PASS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영어권 참석자들을 위한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된다.

대회 안내와 참가 신청은 기드온동족선교회 홈페이지(인터넷검색창에 한글로 '기드온동족선교' 혹은 www.gideonbrothers.org 입력) 또는 전화 425)775-747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세미나는 본지가 협찬한다.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올해도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 배출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전경



새언약초중고등학교 교장 제이슨 송

새언약초중고등학교(교장 제이슨 송, 이하 NCA) 11학년생 김 사이언(여)과 김 제이든(여)이 최근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National Merit)으로 선발됐다.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은 매년 150만명의 참가자 중 5만명만 선발된다.

이 매년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에 참여 좋은 성과를 얻는것이 자랑스럽다”며 “보통 한 반에 20명 미만인 본교에서 매년 적어도 한 두명의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을 배출

하는것은 학교의우수함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했다.

NCA는 WASC 공식인증받은 K-12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한 인타운내에선 유일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문 학교다. 1999년에 설립되어 졸업생 전원이 적어도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 다수는 전국 톱 30대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고, 2021년 가을부터 초중학생을 위한 IB PYP/MYP 프로그램 제공을 시작한다.

NCA에 대한 질문 및 의뢰는 jannah.kang@e-nca.org 에게로, 학교 웹사이트 주소는 www.e-nca.org 그리고 SNS 는 Facebook (@nca-huskies), Instagram (@nca_huskies) 이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에스대 대표), 송영명목사(복음번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말미주대표), 신장민목사(통일인 대변이다),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희 책은 아예 번역권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관수리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급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급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국제, 지리,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하여 복음통일의 길로!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8월 14일(토)
장 소 : 하와이 KONA
문의 : T (425)775-7477, 기독일보 T 213)739-0403
대상 : 한/영/어권 누구나 (영어동시통역)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의장)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총회장	(의장)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대표	(의장)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의장) 김민석 목사 KCC공동대표	(의장) 김연영 목사 탈북자
(총무) 이윤희 교수 에스터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허준석 목사 Heritage Council of USA	(주흥구제) 권기범 목사 유리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한/영/어) 김신장 교수 전통문화연구원
(지교회) 김석진 목사 백용영	(영상제작) 윤학렬 감독 황기영부부	(영924) 채지미 목사 NTZ Mission	(간접) 김연영 자매 2015년 1월	(통역) 황현주 아나운서 서울대지간연수원	(의무총괄) 박상원 목사 GBMW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OUSE CHURCH MINISTRIES INTERNATIONAL
기/경/교/회/사/역/열

제237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평신도가 살아나는 목회!

신약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경적 교회를 현실로!

[날짜] 2021년 7월6일(화) ~ 7월11일(일)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신청기간] 2021년 5월 25일 ~ 6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www.seoulbaptist.org/
[문의처] 713-896-9200 / sbch.office@gmail.com

영어 세미나도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온라인 등록] https://nlftx.org/
[문의처] 713-896-7755 / seminar@nlftx.org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회중 NLF

가정교회에 대해 궁금하세요?
GBC 미주 복음방송 (AM 1190 또는 http://www.kgbc.com)에서 방송되는 “GBC초대석”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수관 목사를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CDC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대면 세미나입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6

“선교사들을 돕는 아름다운 스템 동역자들 이야기”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이라는 선교 타전은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 만으로는 이끌어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직인 선교 동역자들을 배치하셔서 한인 선교 사들을 돌보게 하셨다. 현재 우리 사역지에는 6명의 현직인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펠리시아노 형제와 에우니세 자매는 부부이다. 펠리시아노 형제는 신학교의 총무 일을 맡았다. 말 그대로 전 분야의 사역을 돌본다. 선교사 사모들의 학교 주방일에 관한 재료 구매, 학생들의 생활 관리, 학사 시설 관리, 차량 관리 등등 필자를 포함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다. 그에게 비전이 있다. 올해 목사 고시를 노회에서 치르고 합격했다. 내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치아파스주의 쥘 종족 출신이다. 쥘 종족은 수에 비해 목회자가 현격히 적다. 그는 그 종족의 희망이다. 리더십부터 겸손한 언행, 은혜로운 설교, 성실성, 인성 등 흠잡을 데 없는 말 그대로 일등 목회자 감이다. 그의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신실성이 그를 보기만 해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역자이다.

에우니세 자매는 11년째 학교의 서무행정과 학장의 비서 역할을 한다. 필자와 선교사들이 학사 일정을 짜거나, 현지 교수들을 청빙할 때, 그리고 학생들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성이 좋다. 우리 신학교는 멕시코 현지 장로교단에서 인가하고 선교사들도 멕시코 교단 멤버십을 받아 철저하게 교단소속으로 되어 있다. 교단과 학교 사이에 주고받는 서류, 리포트 등 그리고 현지 이사회와의 소통 등의 주요 서무 행정 업무를 그녀가 처리해 준다. 학장인 필자의 말과 의견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그것을 현지 노회와 총회 그리고 이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다. 또한 학생들의 상담을 맡는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사정을 들어 선교사에게 전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선한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학생들의 가정의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같이 운다. 눈이 통통 부어 걱정될 정도로 학생들의 슬픔을 같이 나눈다.

나훔 선생은 음악 강사이다. 그는 피아노와 합창 지휘를 가르친다. 그는 입학할 때는 피아노를 못 쳤다. 음악교수인 한 선교사님의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점차 그의 피아노 달란트가 커지면서 졸업 연주 때엔 헨델의 메시아를 완주할 정도로 지금은 엔세나다 음악대학을 수료하여 우리 신학교의 음악강사로 헌신하고 있다. 밖에서 일을 하면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신학교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있다.

또 한 명의 음악선생 중 데이빗 선생이 있다. 그도 우리 학교 입학 당시 거의 초보였는데 한 선교사님의 레슨과 지도로 현재 엔세나다 음악대학 졸업반이다. 그가 작사 작곡한 우리 학교의 교가는 졸업식 등 학교 행사 때 불리고 있다. 그 가사와 멜로디가 얼마나 멋진지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이 졸업식 때 와서 교가를 듣고는 교단가로 만들면 좋겠다고 칭송할 정도다. 데이빗은 음악 이론과 피아노 연주를 가르친다, 우리 학교는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가르치는데 나훔은 남학생을, 데이빗은 여학생을 지도한다.

60명의 재학생과 스템, 선교사들까지 70명에 이르는 대식구들의 하루 세 끼 식사를 위한 영양사가 있다. 야니에 자매이다. 그녀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다. 4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영양사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학교에 남아 봉사하고 싶어 한다. 현재 4년째 사모 선교사와 식단을 의논한다. 재료의 리스트를 짜서 구매할 것을 총무에게 알린다.

우리 학교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씩 조를 짜서 일주일씩 주방 일을 돕는다. 여학생들은 영양사들과 음식 만드는 일을 맡고 남학생들은 식당 테이블 정돈, 식후 청소, 설거지 등을 맡는다. 그리고 학생 총무가 있다. 밤에 학교 외곽을 점검하는 정탐꾼 역할을 한다. 스템들이 없으면 선교사들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름다운 이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⑰ “데살로니가를 찾아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선교팀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약 150킬로(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그리스 반도 북부를 동서로 잇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고속도로(Via Egnatia)를 통해 이동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동했던 자세한 과정은 생각되어 있지만 경로를 밝힘으로 그들이 로마의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를 이용하여 이동했던 것을 밝힙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데살로니가(Thessalonica; Θεσσαλονίκη)는 에게 해 북서쪽 터마 만(Themaic Gulf) 끝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의 주요 무역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알렉산더의 헬라제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Thessalonica)라는 도시 이름은 기원전 31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인 카산더 장군은 새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 데살로니가는 필립 2세의 딸이요 자신의 주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배를 받던 데살로니가는 B.C.168년에 피드나 전쟁(Battle of Pydna)에서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무찌른 후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후 B.C. 148년에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되고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 때부터 데살로니가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마케도니아를 대표하는 도시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도시입니다. 바다와 연결된 항구도시와 두강(바다르 강과 비스트릿자 강) 그리고 로마의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고속도로(Via Egnatia)가 교차하는 데살로니가는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와 더불어 국제 상업 도시로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와 사

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다시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바울이 방문했던 회당을 위시해서 데살로니가에 다수의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보다 더 큰 도시였고 헬라문화가 번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Civitas Libera)의 지위를 누렸습니 다. 시의회에서 선출된 5-6명의 읍장들(행17:6)이 자치적으로 시정을 돌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상류층은 로마의 보호와 특권을 누렸고 데살로니가의 하층민은 로마와 가독권층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토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로 세 종류의 종교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버린 것을 바울이 칭찬합니다(살전1:9). 이 종교들이 데살로니가 선교와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숭배 종교입니다. 로마 공화정이 제정으로 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율리우스 시이저(Gaius Julius Caesar)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시이저가 암살된 후에는 그의 양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 분위기는 데살로니 시민들의 폭동(행17:7)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었다.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디오니소스(Διόνυσος)는 고대 그리스 신화

에 등장하는 신으로, 로마 신화에 술의 신 바커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써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종교의 영향으로 술을 탐닉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일삼아 데살로니가는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은 이 타락을 경고합니다(살전4:7).

셋째는 카비루스(Cabirus)의 숭배였습니다. 카비루스는 하층민의 권리를 대변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민중들은 자신들을 대변한 카비루스를 영웅적 순교자로 추앙하며,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들은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그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종교의 영향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부활과 심판 메시지를 받을 때 개념은 쉽게 이해했지만 곡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서에는 부활과 종말 신앙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두 사람 야손(Jason)과 아리스다고(Aristarchus)가 등장합니다. 야손(행17:5, 롬16:21)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카베서가 비교적 상세하게 야손을 소개합니다. 야손은 70문도 중에 하나이며 바울의 고향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그를 다소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리스다고(행19:29,20:4)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과 로마행을 동행합니다. 성경은 아리스다고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나 F.F. 브루스(Bruce)는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시종(侍從)으로 바울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예수님의 70문도 중에 하나이며 훗날 아파메아의 주교로 봉직했다고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교회 예배가 마주한 도전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2)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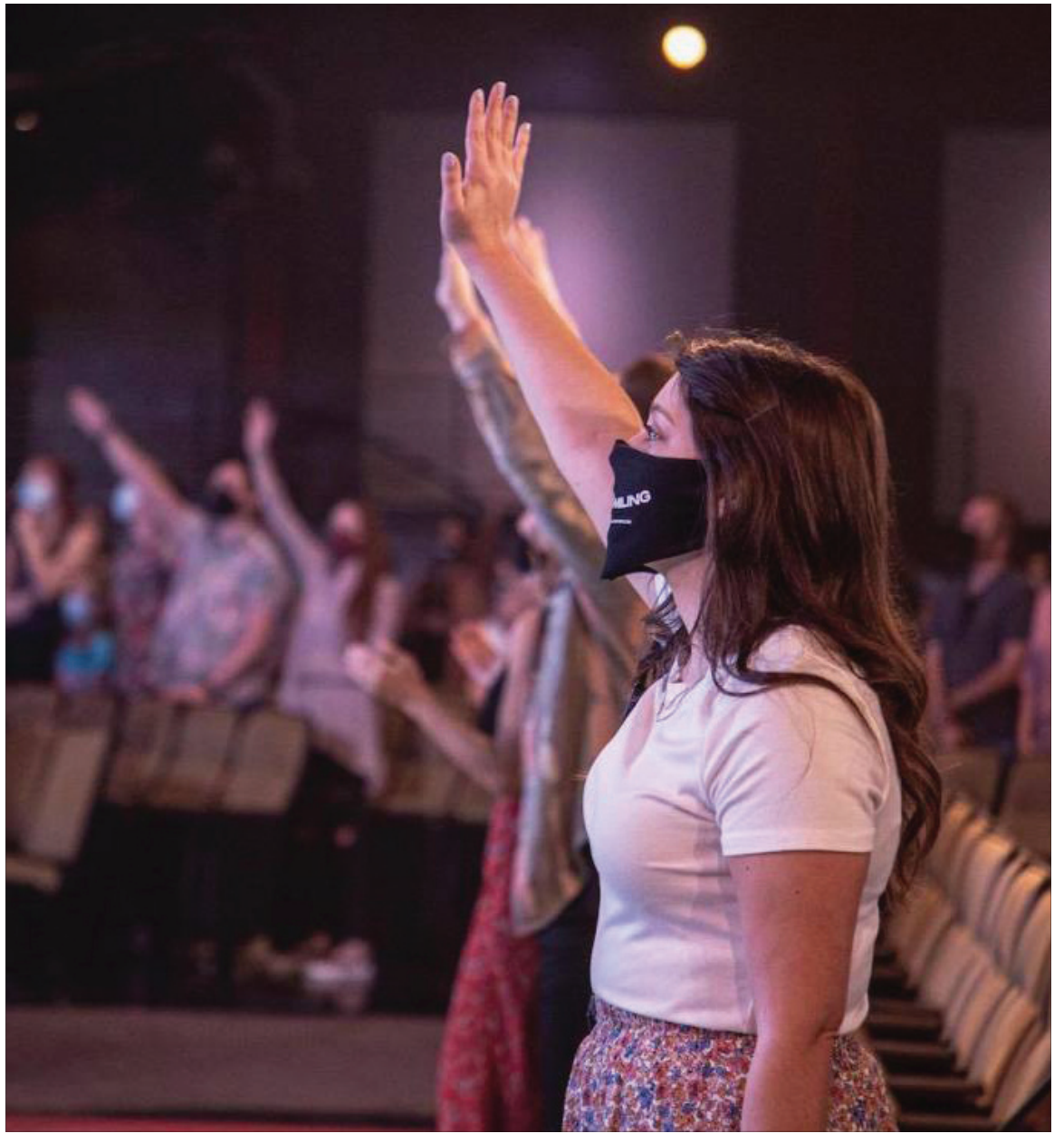
의 제도 교회가 현장성을 중시한 대면 예배를 통해 성장해 왔기에 대면 예배의 붕괴는 기존의 제도 교회의 붕괴로 보아 목회자들은 전통적인 대면 예배가 불러올 수 있는 억압적인 효과들 즉 권위주의, 반 지식주의, 인기 영합주의, 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나,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있는 해방적인 효과에 대한 사려 깊은 숙고는 해 볼 틈도 없이 바로 대면예배로 복귀하고자 만 한다고 꼬집고 있다.

앞서 시내산 예배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자 도널드 휴스테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God), 하나님께 드림(Giving to God)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Becoming more like the God)이다. 이 본질을 시내산 예배에 적용시켜 보면 예배에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행위들 즉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의 찬양, 그리고 모세의 지시에 의해 이스라엘 청년들이 제사를 위해 준비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종교 철학과 정재현 교수가 월드미션대학교 30주년 학술세미나 강연 중 어느 중세교부의 고백을 소개한 적이 있다. “하나님, 내가 지옥형벌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만을 목적 삼아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차라리 나를 천국 명부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 분을 닮고 싶은 것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을 갖고 오늘날의 모든 예배와 찬양, 특히 온라인 예배와 찬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찬반 양론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오고 있던 것이었고,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여 그 논쟁이 더 크게 부각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일보 서윤경 기자가 미국 교회성장컨설팅기관 처치앤서의 대표 톰 레이너 박사가 이야기 한 “코로나19가 종식되도 온라인예배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지난 2021년 2월 3일 기사화 한 것을 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펠로우십 교회

았다. 톰 레이너 박사는 2021년 1월 31일 “교회가 대면예배로 돌아가면서 온라인예배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큰 실수”라고 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꼽은 건 대면예배로 전환해도 온라인예배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대면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온라인예배는 대면예배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예배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 온라인예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사이트 교회를 결집할 수 있다. 고 이야기 한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온라인 예

배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코비드가 끝나도 교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는 현실성과 환경에 순응하는 응색한 이유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만으로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 시키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근거한 접근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기인되는 이유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온라인 예배, 혹은 대면 예배 등 예배의 가용성을 가리기 이전에 먼저 복음적인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두고 가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 복음적인 예배는 시대의 사조와 정신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또 변화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영원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예배의 본질에

기초해서 오늘날 급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문화와 환경에 잘 순응해서 모든 예배를 디자인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계속)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지난 주 모세와 시내산 예배와 음악을 통해서 본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오늘날 코비드 팬데믹시대에 교회에 주는 도전들 즉, 온라인 예배와 예배에서의 회중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예배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한 오늘의 찬양에 대한 도전을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려 한다.

1)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오늘날 회중들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에 회중들은 점점 더 예배에서의 구경꾼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조차 많이 단일해져 가는 안타까움이 있다.

코비드로 인해 처음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큰 저항 없이 그 예배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다. 교회의 어른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많이 불안해 하다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참 편리하다고 이야기 한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다. 이처럼 대면예배를 절대 고수하던 중, 장년층마저 이렇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모든 계층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되기에 대면예배를 대체하는 것으로 온라인 예배가 출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예배로 정착되어가는 것 같다. 이에 두려움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비드에 교인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들일까?’라고 깊이 고민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된다.

오승성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단순히 영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기존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admissions@au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美 복음주의자 75% “바이든 대통령 직무수행 반대”

종교인들 중 반대 비율 가장 높아

미국에서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 4분의 3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설문조사 대상 종교인들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보고서는 여러 종교 단체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분석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성향의 개신교 응답자 중 75%는 바이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반대, 23%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복음주의가 아닌 백인 개신교인들은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53%로 두 번째로 높았고, 개신교인들 전체 중에선 반대 50%, 찬성 48%

였다.

반대로 흑인 개신교인들은 조사 대상들 중 바이든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었다. 특히 이들은 바이든의 대통령으로서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흑인 개신교인, 히스패닉 가톨릭교인, 그리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등 무종교인은 오래 전부터 확고한 민주당 선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확고하고 일관된 공화당 지지 종교 집단 중 하나이며, 그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한결같이 공화주의자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퓨리서치센터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5,10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2.1% 포인트였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몇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te House/Lawrence Jackson

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적 행위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강력했다”며 “그러나 2020년 선거 당시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도 있어, 이것이 그의 패배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ABC방송의 출구조사

분석 결과,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적이고 거둬난 백인 기독교인들의 지지는 2016년 80%에서 2020년 76%로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단체인 신앙과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FFC)은 바이든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것보다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FFC는 “작년 11월 대선 당시,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81%로 2016년 당시와 비슷했고, 바이든에 대한 그들의 지지율은 그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FFC가 Public Opinion Strategies에 의뢰해 실시한 선거 후 조사에서 유권자의 31%가 자신을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했고, 이들은 트럼프에 87%, 바이든에 11%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남침례회 총회장 “새들백교회 여성 목사 안수에 실망”



J. D. 그리어 목사, ©Courtesy Marc Ira Hook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가 3명의 여성 목사를 안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 교단인 남침례회의 총회장 J. D. 그리어(J. D. Greear) 목사가 “실망스럽다”면서 “목사의 역할이든 다른 쟁점이든, 모든 이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리 워렌 목사와 케이 워렌 사모가 개척한 새들백교회는 지난달 28일 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목사 3명을 안수했다고 밝혔다. 새들백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남침례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더럼에 있는 서밋교회(Summit Church) J. D. 그리어 목사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랫동안 새들백교회의 사역적 영향력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이 조치를 취

하기로 한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임스 메리트(James Merritt) 목사가 올린 글을 인용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에 남녀를 부르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격을 갖춘 남성’이 목사/장로/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긍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목사는 “서밋교회는 부끄럽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기념해야 할 성경적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남성들만 변성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들도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며 신뢰할 만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항상 교회를 번영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드러내고 사용하는, 경건하고 강한 여성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가족의 삶에 용기를 준다. 우리는 여성들이 사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혜와 용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이 사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슈가 목사의 역할이든 다른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는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텍사스 플라노에 위치한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를 이끌고 있는 잭 그레함 목사는 트위터에 “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 대로, 여성 목사 안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장담하건대 큰 문제이며, 교단 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침례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 박사는 “새들백과 같이 남침례회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 상당수가 여성을 설교자나 목회자로 세웠다”며 “교단이 모든 계열 교회에 대한 협력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몰러 박사는 “늘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크고 유명한 교회들을 포함한 일부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여성 목사 안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명백해졌다. 게다가 남침례회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아침예배 때 설교하는 여성 목회자들을 환영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침례교회는 우리의 신학적 신념과 협력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여유가 없으며, 이 문제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남침례회 성도들과 우리는 교단의 교리를 재정립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교단의 성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들은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미 성경번역 캠페인 CEO “2033년까지 모든 언어 번역” 목표

미국 뱀티스트프레스가 세계 성경 번역 단체들의 연합인 일루미네이션스(Illuminations)를 지원하고 있는 마텔 크리스찬&에듀케이션의 설립자 겸 CEO인 마트 그린(Matt Green)과 최근 인터뷰를 가졌다.

그린은 인터뷰에서 2033년까지 성경을 모든 알려진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일루미네이션스에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Wycliffe Bible Translators USA), 미국 성서 공회, 파이어나어 성경 번역(Pioneer Bible Translators), 청각 장애인 성경 공회 등 10개의 성경번역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린에 따르면,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 공동체는 3,800여 곳이며, 이들 중 2,000여 곳은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 구절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에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인구는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린은 20여 년 전, 중앙 아메리카를 여행하던 중 한 남성이 40년 이상이 걸려 완성된 모국어 번역 성경을 받고 감격에 복받쳐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이전에 그는 성경 번역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그린은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단체와 함께 일해왔지만, 일관되게 성경을 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날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번역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맹세했다”며 “실질적인 투자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영원한 투자 수익을 향해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린은 2010년부터 매년 세계 최고의 성경번역 기관들의 지도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당시 추정치로는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려면 2150년이 되어야 가능했다. 그린과 성경번역 단체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에 동의했고, 결국 2033년까지 번역을 완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일루미네이션스 그룹은 2021년 3월 24일 ‘I Want to Know’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번역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35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한 성경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된다.

그린은 “아무도 성경 빈곤을 스스로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충분히 큰 조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부자도 없다”며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면, 모든 기관과 파트너들은 그들이 성경 빈곤 퇴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전체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2021 – 2022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1년 4월 10일 ~ 5월 3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1년 7월 25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1년 8월 15일 예정 (추후 발표)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새들백교회, 첫 여성 목사 안수... 남침례회 교단 입장과 '배치'



남침례회 소속인 새들백교회에서 여성목사 안수식이 진행됐다. ©새들백교회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새들백교회가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남침례회(SBC) 소속임에도, 3명의 여성 목사를 안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새들백교회는 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명에서 처음으로 여성 3명인 리즈 퍼퍼(Liz Puffer), 신시아 페티(Cynthia Petty), 케이티 에드워즈(Katie Edwards)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새들백교회는 이날 3명의 신임 장로를 임직했으며, 정신건강 치유사업인 '셀러브리티 리커버리(Celebrate Recovery)'의 새 글로벌 리더로 조니 베이커(Johnny Baker)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9일 기준(현지시간) 793건의 '좋아요'와 525여 건의 '사랑해요'를 받았다. 그러나 '슬퍼요' 표시가 1500여건이 넘는 등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881건의 댓글 중에는 미국 아칸소 주 콘웨이에 소재한 '그레이스 바이블 신학교'의 오웬 스트라찬(Owen Strachan) 신학 교수의 발언도 포함됐다.

스트라찬 교수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비성경적 국면(unbiblical development)의 예"이며 새들백교회를 "떠날 시간은 지금(time to leave is NOW)"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들백 교인들을 향해 "지금은(교회) 떠나 건전한 신도들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체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쓴 글에는 경쟁심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며 "새들백이 하는 일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 목회자를 긍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라찬은 디모데전서 2장 9절-15절을 인용했으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종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는 구절을 함께 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남침례회는 여성 목회자 안수를 지지하는 일부 교회와 개인이 교단을 떠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 봄 코로나 봉쇄령이 있기 전, 일부 남침례회 목회자들은 6월로 예정된 교단 총회에 캘리포니아 주 소재 이스트레이크교회의 여성 교육 목사인 호산나 왕(Hosanna Wong)을 특별 연사에 포함시킨 데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폼페이오 전 장관 "바이든 정부, 종교 자유 포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착한 기독교인'과 '착한 미국인'이 끊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타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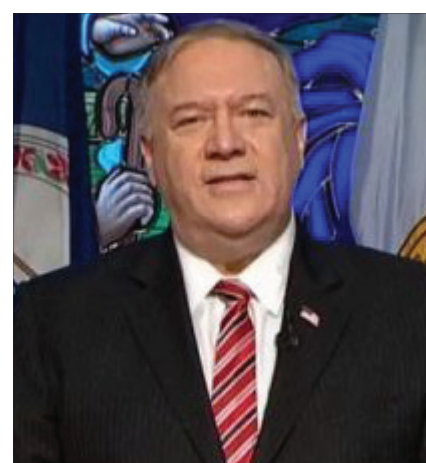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최근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에 소재한 리젠트대학교 쇼채플(Shaw Chapel)에서 진행된 졸업식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미국의 건국의 뿌리는 유대-기독교적 가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종교적 자유가 정부로부터 더욱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미국인이 되는 것'과 동떨어진 의미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 뒷마당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사회도 종교의 자유 없이는 정당성이나 도덕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 경제, 무역 정책의 전열을 넘어 미국의 건국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는 전투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보수 기독교에 적대적인 이들과의 '중간 지대'를 찾으려 하거나 이념적인 적들과 합의하는 것에 반대한다. 종교적 자유를 부정하면서 다른 식으로 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거대한 생명력'으로 종교적 자유를 행사해야 하며, 이곳 가정에서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 무신론의 창끝에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CP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종교 자유의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유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리젠트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타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리젠트대학교 제공

이에 관해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재임하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국무부는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증진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우리는 이것이 독립적 권리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는 지역의 국가들은 더욱 번영하며, 그곳의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 졸업식 행사는 애국가 제창, 미 해군 예비역들의 프리젠테이션, 창립자인 팻 로버트슨 총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팻 로버트슨 총장은 "여러분이 밀바닥에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실패자와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LA백송교회
백암회침례 순결회 소나무침례 놀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영육하며, 이만2세를 영육하며,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도모임(수) 오후 7:30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를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새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부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차성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정정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2:3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리안) (소매)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4대 지역: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0:30 GCEM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LA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김기철 총신대 이사장 “무거운 책임감… 회복에 힘쓸 것”

난항 끝에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재단이사장에 선출된 김기철 목사(정읍성 광고교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총신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총신대는 지난 4월 2년 6개월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한 차례 파행을 거쳐 개교 120주년을 나흘 앞두고 지난 11일 선출됐다.



총신대 개교 120주년을 나흘 앞두고 재단이사장에 선출된 김기철 목사가 지난 15일 개교기념 행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 이사장은 17일 예정 합동 교단지 기독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쟁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차츰 치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와 비교갱협 사이의 대립 구도로 비친 점에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과도하게 프레임은 짠 것은 유감”이라며 “교갱협 소속이 4명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부담감이 이사회 운영과 학교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단 소속 여성이 이사로 등용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정관개정 건에 대해선 “교단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단 소속 여성 이사를 등용하는 것은 먼저 총회 안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총회 구성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신대의 재정 위기에 대해선 “사립대학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외부이사들에게 이사 회비를 납부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교단 소속 이사들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와 교단 총회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선 “이사들에게는 총신이 교단 신학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총회에는 총신이 사학법과 학교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총회와 총신을 연결하고 조화롭게 하는 게 이사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신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공정한 학교 운영으로 신뢰를 얻겠다. 총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회복이 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앞서 15일 120주년 개교기념 예배에서는 “이사장으로서 총회와 연결고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총회는 인내심을 갖고 도와 달라”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북한으로 보내야”



한변과 올인모의 화요집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태영호 국회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참석해 발언했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18 정신을 북한인권 운동으로’라는 제목으로 제111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앞서 발표한 이날 집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41년 전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되었다”며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운동과 다르지 않았다. 이제 5.18 정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중한 자산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북녘에서는 2,500만 북한 동포가 70여 년을 인권 지옥에서 신음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에도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는 19년 연속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아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고,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유엔, 미 쉐인 인권위원회, 청문회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대한민국이 달성한 민주화·산업화의 모범국가’ 이미지가 무너졌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치동맹인 한미동맹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5.18 민주화운동은 자

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의 숭고한 정신을 김정은 수령독재 저항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이다. 41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겨진 민주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슬며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사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2019년에는 26번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2020년에는 6번, 올해는 단 한 번도 안 실렸다”며 “오늘 아침 북한의 대남 언론매체들은 입을 모아 광주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떠들었는데 북한 노동신문은 일침 할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광주의 5.18 민주화 정신이 북한으로 퍼지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5월의 광주가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며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아직 한반도의 민주화도 실현하지 못했는데 언제 다른 나라의 인권, 다른 나라의 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되었느냐... 저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가 또 우리가 정부가 당연히 한반도 전역에서의 민주화와 인권을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그 첫번째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rn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정)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대(한정)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지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형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성경학교 오전 9: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포를 세우며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종교동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종교동부, 종교동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미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2:00(성년) 2:30(유년)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 예배 오전 11:30(성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르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김나오미,백선경,로완리
신학사:임정열,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미나리와 이민의 꿈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분해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아들 데이빗의 지병인 심장병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데도, 갈등하는 부부는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농장에서든 교회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식과 손주를 도우려고 왔다가 풍에 맞은 할머니에게서 옵니다.

구원은 송고하지 않으나 사랑으로 충만한 할머니에게서 오는데, 반신불수 할머니의 실수로 농장의 열매를 저장해둔 창고가 불타는 사건을 통하여 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지는 불을 잡지 못했습니다. 부부도 불에 대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은 모든 갈등과 차이와 염려와 자기주장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죄책감에 방황하는 할머니를 찾기 위하여 심장병을 극복하고 달려가 할머니를 붙들고 “떠나지 말라”는 손주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미국 할머니 같지 않다”고 비교하는 손주들이 아닙니다. 태우는 불은 찢어진 가족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 밤 온 가족들은 트레일러 안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불이 지난 후, 그렇게 싸우던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는 농장에서 수원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구원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할머니가 일으킨 불이 가족을 다시금 엮어줍니다. 할머니가 고국에서 씨를 가져와 시냇가에 심은 미나리는 어느덧 삼품이 되었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 원더풀 미나리! 부자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국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 약이 되는 미나리는 농장의 소망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 농장의 숨겨진 곳, 가장 낮은 시냇가 버려진 장소와 같은데 자라나는 미나리는 “원더풀”(wonderful) 콩글리시로 번역하면 놀라운 “원더”(wonder) “풀”(vegetable)입니다.

룻기에도 소망의 미나리, 회복의 미나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왕조를 이루는 다윗왕의 가문에는 흑암의 사사시대에, 버려진 땅의 채소 미나리처럼, 아름답게 나타난 여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과부 룻이며,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 이스라엘 민족의 향기로운 미나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영화 ‘미나리’가 70여 개의 수많은 상과 함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의 비약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입니다. 저도 마스크에서 많은 칭찬을 하기에, 주일 저녁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와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잔잔한 여운이 계속 있어 영화를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정이사 감독은 어렸을 적에 미국에 온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전적인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소 권위적인 아버지와 현실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딸과 사위를 나를 돕고 손주들을 키우는 사랑이 많은 할머니의 모습이 한국적인 이민 가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몇몇 코드는 적박한 아칸소주 농업 이민의 꿈, 기독교 신앙의 실천, 그리고 부스러지기 쉬운 가족사입니다. 농장주의 꿈에 충실한 제이콥과 교육 열로 충만한 모니카 부부의 갈등은 가족이

가정의 소중함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기독교 가정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과 신앙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힘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가정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릴 때 주례목사로부터 듣는 남녀의 만남의 섭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가정을 시작한다. 남녀가 만나서 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흔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를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혼식에서 확인하고 그와 같은 믿음과 신념으로 가정을 유지하기에 힘쓴다.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생명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녀는 내가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와 같은 성경적 관점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성경적 가정관의 확립은 오늘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육 내용 중에 하나이다. 무엇보다 사랑과 헌신은 강요한다고 그것이 가정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먼저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따를 때 가정의 건강은 세워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의 기관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과 위로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베드로전서 1:15-16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를 치르곤 한다. 가정은 주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허락해주신 은혜의 공동체이고, 사회적으로도 시민의 실질적인 행복과 회복이 경험되는 기초 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정인데도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과거 대가족의 문화에서 핵가족의 문화로 변모하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도 있다.

그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 중에 비신자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신자인 가족도 비신자의 가족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을 때 가 많은 것 같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점 외에는 세상 사람들의 가족공동체와 믿는 이들의 가족 공동체가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는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론(3)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뜻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다.

일반적으로 세상 법에 의해서 가족이 형성되려면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여,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족이란 무엇보다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피를 나누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물학적 가족이 된다. 물론 오늘날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지는 않았더라도 법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이룰 수는 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상 부부관계는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는 관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의미에서의 가족이란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말은 교회가 바로 “피”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혈액형은 A, B, AB, O형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 J, C형이다. Jesus 형 또는 Christ 형이란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믿음의 사

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서로 서로에 대하여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도 매우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희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을 나누어 가져서 영원히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요한서 3장 15-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를 위하여 재물을 버리는 사랑, 더 나아가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재물을 희생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만일 교

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진리, 내 옆의 형제와 자매가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는 내 살붙이 형제와 자매보다도 사실상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교회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라는 진리는 교회의 속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 (unity of the church)이라는 진리다. 어떤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배경, 재능, 취향, 관심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배경, 재능, 취향, 관심이 다양하더라도 그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려면, 그 가족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영적 가족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려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됨” “연합됨”으로 표현하고 있고,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교회론에서는 “통일성”이라는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말로 그것을 표현하든지 간에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는 하나됨을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

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1-6) 라고 선포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진리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명품가문을 이루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어떤 가문에는 영광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사람의 실패나 추문은 그 가 속한 가문에 수치와 치욕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안동 권씨 가문이나 전주 이씨 가문 등은 권세와 명망이 있는 가문으로 오랫동안 존경을 받아왔다.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 또는 ‘하씨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취하는 삶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가문에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문에 수치와 치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허물과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딱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가문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문에 영광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공동체의 삶은 더 신중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수 주병제작
 교미로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대인관계의 가치기준

야고보서 2:1-2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젓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많은 체험과 감동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는 생활로 평생을 성직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교리적인 바탕위에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A.D 62년쯤 기록된 것으로 그 당시 로마의 네로황제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조짐이 있었고 그것을 직감한 야고보는 앞으로 교회가 대 로마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란, 핍박을 당하며 많은 고난과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지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셔서 성령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회개 시켜주십니다. 또 인간의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1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더냐? 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신앙고백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고백은 말로 하는 것과 생활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입술로 하는 신앙고백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신앙고백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예수님께도 보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였고 가꾸어 주신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대할 때 걸치레만 보고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기준은 상대방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곧 형제요, 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각 지체로서 머리에서 내려지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상대방이 성령을 받았다면 같이 협력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합심 전력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지옥가게 되는 것이니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이 생명의 길로 구원 얻게 되도록 전도하는 일에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천국가게 하는 영적제질신앙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생활의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성령으로 가꾸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대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아낌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16절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빈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속셈을 하거나 하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재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네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인류에게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아무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으며 설혹 이삭이 재물로 바쳐져서 잿더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각 지체로서 그들의 육신의 겉때기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8-9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다음세상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I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I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마디관절 손톱 발톱 질환

때때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염,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핏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근전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자산어보> (1)

영화 <자산어보>와 KF-21, 과학기술에 대한 한국인의 애증

유교적 세계관 속 과학기술 천시 대가 혹독히 치른 뒤 한국인들 마음 속에 과학기술에 늘 두 가지 감정 교차 과학기술 발전과 진보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열망과, 이 발전 가로막은 유교·성리학 전통 대한 극단적 환멸

◆과학기술과 성리학: 자연과학과 기술문명 발전의지를 말살시킨 성리학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설경구 분)과 상민 신분의 인물 창대(변요한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옮긴 영화 <자산어보>는 성리학 근본주의로 인해 자연과학 및 기술문명 부문에서 발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조선의 갑갑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약전이 생존해 있던 시기 (1758-1816년) 서구 각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격변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1789-1799년)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산업혁명의 경우, 이미 16-17세기 일어났던 과학혁명의 결실에 힘입어 기술문명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서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에 이른다.

서구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힘을 인간의 죄된 본성에 충실하게, 패권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서구 열강의 무자비한 식민지화로 인해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겪게 된다.

자연과학과 기술문명의 힘을 업신여겼던 조선 역시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된다. 양명학을 제외한 유교 사상의 지류 전반은 복고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성리학을 '그 자체대로' 신봉하던 조선 사대부들 역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심히 복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자연과학과 기술문명 발전이 유교적 세계관과 윤리 관념으로 질서잡힌 조선 사회를 혼돈과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라 여겨, 과학의 발전을 경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누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조선의 패망, 일제 식민지배의 고통, 그리고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195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위치였다.

이렇듯 과학과 기술을 천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한국인들은 이후 패권적 기술문명 발전에 사활을 걸게 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술적 강점들을 키우는 원동력을 이루게 된다.

아직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뤄낸 강대국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불과 60여년 전만 하더라도 가발과 봉제 수출에 의존했던 나라가 현재 세계 제1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전 세계 역사를 통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발전 사례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난 주에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다.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국민 모금운동을 통해 AT-6 고등연습기 10대를 캐나다로부터 힘겹게 수입해온 것이 불과 70여년 전인데, 이제는 자체 전투기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알려주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그 누구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자연과학과 기술문명의 힘을 실감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마음 속에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항상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진보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열망, 그리고 이런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아온 조선의 유교, 성리학 전통에 대한 극단적인 환멸과 분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한국인: 신앙과 윤리를 아득히 넘어서 과학주의의 기치

영화 <자산어보>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정약전과 그의 제자로 등장하는 창대를 통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우선 정약전의 경우 동시대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미국 같은 곳에



성리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을 반영한 영화 <자산어보>.

서 태어났으면 제임스 와트나 일라이 휘트니 수준의 기술혁신 업적을 남길만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성리학 근본주의에 갇혀 있던 조선에 태어난 점이 못내 아쉽다는 감정이 반영된 등장인물이다.

그의 월등한 지적 자질은 서학(천주학)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개화된 면이 있지만, 조선이라는 과학기술 불모지의 정황적 한계상 주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집필한 수준의 생물학 저서를 남기는 데 그쳤다.

영화는 정약전 본인의 대사를 통해 이러한 조선의 갑갑한 현실을 확인시켜 준다. "주자(朱子, 성리학 창시자 주희)는 참 힘이 세구나."

다음으로 창대의 경우 과학기술 발전을 좌절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과 사회를 망쳐온 성리학에 대한 환멸과 분노, 실망감이 반영된 인물이다.

영화 속에서 창대는 정약전이 추구하던 실사구시 정신을 '조선의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사상'으로 판단하고, 성리학을 통해 입신양명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결국 그 성리학의 고풍함,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상체계로서의 무력함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산어보>의 두 주인공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과 성리학에 대해 갖고 있는 상반된 태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이면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패권적인 힘과 그 결실의 향유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이처럼 과학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염원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욕망이 패권적 지배욕과 결합되는 것, 그리고 자연과학과 기술문명 발전의 가능성과 결실을 심히 과대평가하여 이를 이상화하는 처사를 경계한다.

과학기술의 힘에 도취되어 이상화에 빠지면 과학주의를 신봉하고, 결국에는 과학이 알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진리, 예를 들어 인간 존재의 기원이나 신의 존재 등에 관한 진리를 제한된 현상 관찰과 미검증된 이론에 기대어 단정적으로 언표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진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진리로 옹립하는 인식적 월권을 범하게 된다.

과거 칸트는 인간의 과학적 인식이 갖는 한계를 분명하게 지정하기 위해 <순수이성비판>을 집필했다. 그런 그의 지혜는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현실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서구인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근대 과학기술의 힘과 한계를 경험해왔다. 게다가 세계의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전통을 갖고 있었으므로, 과학기술의 맹목적 발전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반성할 수 있는 지적, 윤리적 토양을 일궈낼 수 있었다.

반면 우리 한국인들은 성리학 근본주의의 심각한 부작용과 과학기술 미비로 인한 역사적 비극 체험의 반작용으로 과학주의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신앙이나 윤리를 유념치 않고 오로지 남을 이길 힘을 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라도 환영한다는 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영화 <자산어보>의 내용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도 이러한 공감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신앙과 윤리 차원에서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자체의 온전한 발전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된다.

당장 우리 손에 힘을 쥐어줄 수만 있다면 그 한계나 부작용, 그리고 검증이 미비한 부분에 상관없이 어떠한 과학적 학설이나 기술적 원리라도 즉시 진리로 받아들여버리는 학문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러한 오류 가능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과 국방과학기술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KF-21 시제기.



<자산어보>의 장창대(변요한 분). 실학이 지향하는 바를 거부하고 성리학에 위탁했다가 그 참혹한 실태에 좌절하는 인물.



<자산어보>의 정약전(설경구 분). 선구적인 실학자였으나 성리학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조선의 고루한 시대적 현실에 막힌 비운의 천재.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일상의 영웅 찾기

진정한 어른, 잔인한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꽃 피우는 사람



어른의 교양
천영준
21세기북스 | 236쪽

**‘인정 자본’ 말고
‘성찰 자본’이
필요한 시대!
지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교양 수업**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일이다!”
철학, 예술, 역사,
정치, 경제
5가지 개념으로
파악하는
실전 인문학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평판이나
분위기 속에서도,
내 머리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각의 기술’이야말로
어른이 갖춰야 할
교양이다.

노력만큼 결과 나오지 않고, 생각대로 일 진행 안될수록 내면 단단하게 해야... 교양, 잔인한 삶 아름답게 만들어

코로나가 일상이 되기 전 극장가를 주름잡던 영화가 있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웅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영웅을 통해 희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웅을 갖길 원한다. 믿고 따를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언젠가부터 ‘진짜 어른’이 없다는 말이 들려온다. 어른은 많은데 믿고 따를 어른이 없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떠오른 문제는 세대간 충돌이다. 젊은이들은 어른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도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골이 깊어진 세대간 충돌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큼 잔인한 것도 없다. 인생살이가 쉬워져야 하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 따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생을 잔인하지 않고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교양을 쌓는 것이다. 교양은 잔인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

《어른의 교양》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지적 무기와 감동을 탑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어른이 가져야 할 교양이다.

저자 천영준은 기술정책학자로 기술과 사회정책,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글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교양을 쌓기 위해 인문학과 고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이렇게 답한다.

“굳이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생각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만의 생각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다.”

저자가 생각하는 어른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배려 없이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자는 자신이 어른이랍시고 어쭙잖은 조언과 지시를 하는 사람을 ‘가짜 어른’이다.

저자가 말하는 진짜 어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창조적인 사람이다. 역

사에서 말하는 진짜 어른은 파스한 말이나 가벼운 위로를 주는 분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부지고 강한 어조로 외쳤다.

“너 자신의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일어서라”고, “누군가의 위로에 의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라”고 말한다.

어른의 교양(어른의 교양)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어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소크라테스의 삶을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사상과 논리를 지식으로 대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힘든 인생살이에 힘겹게 균형을 잡던 한 인간의 힘겨움을 느끼게 되었다.

‘너 자신을 알라’며 엄하게 훈계하던 성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적 격랑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른의 교양》에는 소크라테스 외에 공자, 베케트, 셰익스피어, 헤겔, 니체, 사마천, 루터 등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철학’으로 어떻게 남과 다르게 깨달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소크라테스, 헤겔, 세네카, 니체, 에피쿠로스, 석가모니가 이에 답한다.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가치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가지라라고 강조한다. 오래된 경험을 참된 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부는 ‘예술’을 통해 어떻게 남과 다르게 볼 것인가를 질문하고 바흐, 호크니, 클림트, 셰익스피어, 베케트, 르코르뷔지에가 답한다.

창의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최연소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의 전직 장관은 ‘수학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 바흐도 스물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궁중 악장이 된 후 평생 매달 한 곡의 칸타타를 썼다.

창의적인 시행착오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고, 작은 아이디어가 수차례 조합되고 나면 그 안에서 의

도하지 않았던 대박이 터진다.

3부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남과 다르게 극복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사마천, 루터, 마르크스, 베버, 로베스 피에르가 답한다.

루터는 교회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갑질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없으면 변화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루터는 당당하게 항의해야 할 때 용기를 냈다. 그의 저항이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4부 ‘정치’를 통해 남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마키아벨리, 가, 공자, 비스마르크, 마크롱, 블레어를 통해 배운다.

여우 같은 판단력은 경쟁 사회에서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적절히 따뜻한 가슴과 인간적인 품행이 결합될 때에만 개인의 경쟁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 힘을 가진 자,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마키아벨리를 읽어야 한다.

5부 ‘경제’에서는 남의 이익과 내뿜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스미스, 실러, 카너먼, 윌리엄스, 뒤플로, 노스를 통해 배운다.

공정을 따지는 시대다. 채용 과정, 병역 의무, 입시 등 공정에 대한 이슈와 논쟁이 많다. 스미스는 마음 속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앞으로는 부를 결코 위주로 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를 창출하는 과정 중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부를 이미 창출한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성

에 더 많이 신경써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마다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르다. 그 자세가 그 사람의 교양을 나타낸다. 불이 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망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

배우 윤여정 씨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 결과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배고파서 연기 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

현실은 잔인할 때가 많다.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 교양은 잔인한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가 찾는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 잔인한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이다. 진정한 어른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어른이 되어주길 바란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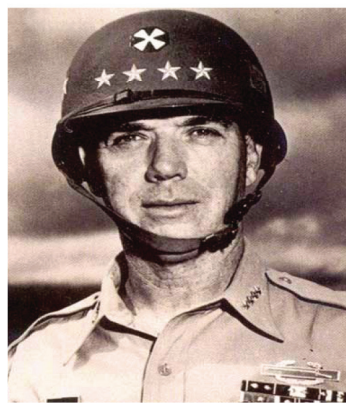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공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연합)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연합)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통일부교육위원



(구출구제)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정치)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홍보팀장



(지하교회)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영상문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영어2세)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증언)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총괄)
박상원 목사
GBMW



주관: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협력: 기독교동작교회

협찬: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 생중계